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강경화 · 최영성¹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 동의한의원 원장

Review on Sweat in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Young Sung Choi¹,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ongeui Oriental Clinic

Review is made on the sweat in "Donguibogam" from the view point of Hyungsang medicin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Clinically sweat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the condition and constitution of the patients. Swe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iagnosis and treatment. Sweat is one of the symptoms that appears when there is a disharmony among Jung(精), Ki(氣) and Shin(神). The cause and phase of sweat varies with every patient. Dam type persons(膽體) are inclined to have night sweat, while Bangkwang type persons(膀胱體) are apt to have day sweat.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Jung(精), Ki(氣), Shin(神), Hyung Sang, Yin-Yang, Sweat, BangKwang(膀胱)

서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체질을 관찰하다 보면 땀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임상에서도 환자들을 보면 각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땀의 다소와 땀이 나는 양상이 각 질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땀을 津液¹⁾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그 津液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腠理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汗이라 하였으나 인체를 구성하는 津液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重要하다. 韓醫學을 集大成한 《東醫寶鑑》에서는 땀이 나오는 部位別로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등으로 구분되고, 땀이 나오는 樣相으로는 自汗과 盜汗으로 나뉘어 있다. 원인별로는 火로 인한 血汗, 黃疸로 因한 黃汗, 飲酒傷風으로 因한 漏風症, 眞陽虛로 인한 亡陽症, 風寒으로 인한 傷寒症등의 汗出로 나뉘어 진다. 이렇듯 한의학에서는 땀이 질병의 診斷과 치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양의학에서는 단순한 체온과 체액의 유지와

노폐물의 배출정도로의 역할만을 擔當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서양의학적인 땀의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생리적인 땀과 병리적인 땀의 개념을 구분하고, 부위와 원인별로 땀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치료법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땀의 概念을 알아보고 각 질환에 있어 땀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례를 발표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서양의학에서 본 땀

많은 종의 포유류는 체내, 외부의 온도가 크게 변하여도 심부온을 ±1℃ 이내로 조절하며, 다양한 포유류의 정상적인 체온은 36-39℃로써 비슷하다.2) 인간 역시 恒온동물로서 비교적 좁은 범위로 체온을 조절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체계(physiological system)를 가지고 있다. 땀은 그 중의 한 방법으로서 땀이 氣化할 때 신체로부터 열을 빼앗기 때문에3) 체온의 상승을 억제하게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산 2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ce@dongeui.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3/04/13 · 수정 : 2003/05/28 · 채택 : 2003/07/15

1) 精校黃帝內經靈樞, p.183 "水穀入於口, 輸於腸胃, 其液別爲五, 天寒衣薄, 則爲溺與氣, 天熱衣厚則爲汗, 悲哀氣并則泣, 中熱胃則爲唾, 邪氣內逆, 則氣爲之閉塞而不行, 不行則爲水脹, 余知其然也."
2) 환경적응생리, p.131
3) 해부생리학, p.285

된다. 한편 이로 인해 과잉 배출되는 수분은 體液⁴⁾총량의 감소로 타액의 분비의 저하를 일으켜 갈증과 건조를 유발하게 되어 수분섭취를 증가하게 한다.⁵⁾ 특히 西洋醫學的인 용어인 體液는 한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津液과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역할만을 의미할 뿐이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無形的인, 예를 들면 陽氣라든지 하는 개념 등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요약하면 서양의학에서는 땀을 단순히 물질로만 보아 體液의 보충과 손실로 판단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2. 한의학적인 땀의 개념과 생성

1) 땀의 개념

《難經》에서는 땀을 五液⁶⁾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도 땀은 〈津液門〉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땀을 津液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곧 땀은 津液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땀은 체내에서 津液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땀의 형태로 腠理⁷⁾를 통해 체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조절해주는 관문이 되는 것이 玄府⁸⁾로서 체내의 상태나 외부환경에 따라 땀을 조절해주고 있다. 즉 땀이란 피부에 있는 腠理를 통해 인체 내외부의 환경에 인체가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生理·病理的인 발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땀은 小便과 함께 계절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消渴門〉을 살펴보면 땀과 小便에 대해 언급하기를 “心이 汗과 便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便과 汗이 많이 나오면 腎이 虛하고 燥한 고로 渴한 것이니 무릇 여름에 濕하면서 땀이 많이 나면 小便이 적고 겨울에 땀이 없고 小便이 많은 것은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이렇듯 계절에 따라 땀과 小便이 많고 적은 것은 인체의 津液이 부족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2) 땀의 생성

땀의 생성도 生理·病理的으로 모두 인식되어 질 수 있다. 《黃帝內經·靈樞》에서는 “津液이 변화하면 心에서는 땀이 된다.”¹⁰⁾고 하였다. 火의 臟器인 心臟이 陰血인 津液을 땀으로 만든다는 것은 陰液인 땀도 陽火가 더해져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黃帝內經·素問》에 “陽加於陰, 謂之汗.”이라 하였

는데 이는 땀이 陰液이기는 하나 陽氣가 더해져서 체외로 발산되어야 만이 생성되는 것이다.¹¹⁾ 즉 땀은 陽氣와 陰氣의 作用이 모두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땀은 濕熱 때문에 나온다. 즉 火氣가 濕을 熏蒸하여 생기는 것으로¹²⁾ 이상은 생리적인 땀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內經註〉에는 “氣가 薄하면 陽이 적으므로 發汗한다. 이는 즉 땀이 난다는 뜻이다.”라 하여 陽氣가 적을 때 땀이 난다는 것을 말하였다.¹³⁾ 또한 傷寒中에 太陽傷風¹⁴⁾의 경우와 같이 병사와 항쟁하는 과정에서 風寒을 제거하기 위해 땀이 나는 것은 병리적인 땀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3.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본 땀

1) 부위와 원인별 분류

《東醫寶鑑》에는 각 병증의 항목이 주로 증상을 중심으로 삼아 列擧되어있는데, 〈內景篇·津液門〉에는 汗症의 처방으로서 身汗,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 血汗, 止汗法, 無汗法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다. 그 病項에 따르는 처방을 出典과 함께 일일이 제시되어 있다.¹⁵⁾ 머리는 모든 陽이 모이는 곳으로 邪氣가 모든 陽과 부딪치면 津液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를 頭汗¹⁶⁾이라 한다. 머리는 三陽經이 모이는 곳이다. 三陰脈은 가슴에 와서 되돌아서게 된다.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陽이 虛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陽이 약하면 땀이 나지만 陰이 虛해서는 땀이 나지 않는다. 각 病因別로는 傷寒¹⁷⁾, 多濕¹⁸⁾, 陽明胃家實¹⁹⁾, 水結胸²⁰⁾에서 나타난다. 다른 곳에서는 땀이 나지 않고 오직 心臟이 있는 心脈 부위에서만 나는 것은 心汗²¹⁾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心血이 盛한 것으로 思慮過多등으로 心臟에 血氣가 過度하게 모여서 되는 경우이다. 처방으로는 陳艾湯, 參歸腰子, 茯苓補心湯 등이 쓰여진다²²⁾. 手足汗은 熱이 몰려서 胃腑를 억누르기 때문에 津液이 胃腑로부터 사방으로 퍼지면서 걸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것은 陽明症으로서 胃의 熱을 瀉하는 방법을 써야한다²³⁾. 그러나 때론 血이 虛한 틈을 타서 熱이 오는 五心煩熱症²⁴⁾ 중에도 手足汗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陰汗²⁵⁾은 陰囊 부위에서 땀이 나는 것으로서 원인은 腎虛陽衰한 때문이다. 虛損의 病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七傷²⁶⁾ 중에서도 이

11)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 譯解. p. 75

“汗乃陰液, 由陽氣之宣發 ……是謂之汗”

12) 對譯 東醫寶鑑 p. 260

13) 芝山先生 臨床學特第 VI. p. 213

14) 對譯 東醫寶鑑 p. 1001

15) 韓國醫學史, p. 322

16) 對譯 東醫寶鑑 p. 264

17) 對譯 東醫寶鑑 p. 264 “頭汗出, 齊頸而還, 血證也, 額上偏多. 蓋首者六陽之所會, 故熱氣熏蒸而汗出也. 以部分言之, 則頭屬腎, 額屬心, ……故發爲頭汗, 而額上偏多也. 「秘藏」”

18) 上揭書 p. 1090 “濕者, 土濁之氣, 首爲諸陽之會 ……濕氣熏蒸, 漉道不通 …… 「丹心」”

19) 上揭書 p. 1004~1007

20) 上揭書 p. 678 “傷寒結胸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膈, 但頭微汗出「仲景」”

21) 上揭書 p. 264

22) 上揭書 p. 265

23) 上揭書 p. 265

24) 上揭書 p. 1111

25) 上揭書 p. 265

26) 上揭書 p. 1170 “虛損之疾, 生自五勞, 既生六極, 復生七傷, ……又一曰陰

4) 生理學, p. 3-1

세포내액(intracellular fluid) 과 세포외액(extracellular fluid)을 말하는데 세포내액은 생명현상의 본체가 되는 모든 생화화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며, 세포외액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 산소, 영양물질 등 세포가 필요로 하는 재물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받아 세포에 공급해주며 세포 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되게 함과 동시에 전해질농도, pH, 삼투질 농도(osmolality)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5) 해부생리학, p. 487~490

6) 對譯 東醫寶鑑 p. 259 “腎主五液, 分化五藏, 入肝爲淚,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自入爲唾.”

7) 上揭書 p. 727

8) 上揭書 p. 555 玄府란 것은 사람의 臟腑, 皮毛, 肌肉, 筋脈, 骨髓, 爪牙를 다 간직하고 氣의 出入, 升降의 徒勞와 門戶가 되는 곳이니 조금이라도 閉塞함이 있고 作用이 멈추지면 모두 熱氣가 沸騰하고 玄府가 閉塞하므로 氣液, 血脈, 榮衛, 精神이 제대로 出入 升降을 못하게 된다.

9) 對譯 東醫寶鑑 p. 1329, 1330

10) 上揭書 p. 259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虛症이 심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色으로 나누어보면 心火와 膽熱로 인해 붉게 나오는 血汗²⁷⁾과 黃疸로 인해 누렇게 나오는 黃汗²⁸⁾로 나누어 진다. 땀을 내야 할 때 땀을 내지 못하거나 小便이 잘 나가게 하지 못하여도 黃疸이 생겨서 黃汗이 나오게 된다.²⁹⁾ 즉 황달이 濕熱³⁰⁾로 인해 발생되었을 때, 땀이 바로 濕熱을 除去³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술을 마신 후 바람을 맞으면 漏風證³²⁾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땀이 몹시 나서 언제든지 흘렀 한 가지만은 입지 못하며,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난다. 그리고 푹하면 몸에 熱이 나고 숨이 차며 땀이 나서 옷이 늘 젖어 있고, 입과 목이 잘 마르며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甚해지면 결국 津液이 손상되어 消渴證이 된다.³³⁾ 이는 술로 인해 濕熱이 생긴 상태에서 傷風하여 腠理가 열려 濕熱과 風邪를 除去하는 과정에서 체내의 津液이 과다하게 배출되었기 때문에 消渴證까지 유발되는 것이다. 술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判斷되며 去風除濕할 수 있는 치료³⁴⁾를 要한다. 또한 땀이 멎지 않고 계속 되어 陽이 虛해지는 亡陽證³⁵⁾이 있다. 이것은 津液 뿐이 아니라 眞陽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으로 몸이 싸늘해져 寒痺證³⁶⁾이 되고 결국은 땀도 나지 못하게 된다. 그 治療는 溫陽시키되 發汗시키지 못한다.³⁷⁾ 또한 死症으로서 絶汗³⁸⁾이 있는데 구슬 같은 땀이 나기는 하나 흘러내리지는 않다가 곧 마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체내의 津液이 이를 護衛하는 陽氣가 모두 끊어지자 체외로 스스로 새어나오되 더 이상 밀고 나오지 못하여 그 量이 많지 않아 腠理에 맞히는 것이다. 한편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失血이 過多한 경우³⁹⁾, 表實證, 三陽實 三陰虛, 眞氣不足 胃火, 傷寒陰證, 陽氣有餘 陰陽有餘 등으로 나누어 진다.⁴⁰⁾

2) 自汗과 盜汗의 비교

증상으로는 깨어있을 때 스스로 나는 自汗과 잠자는 사이에만 나는 盜汗으로 구분되어 진다.

自汗은 사람이 깨어있을 때의 氣血運行的 道가 되는 衛氣가 虛⁴¹⁾해서 오고 盜汗은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의 氣血運行的 道가 되는 營氣가 虛⁴²⁾해서 오게 되므로 自汗과 盜汗은 모두 虛症

으로 볼 수 있다. 즉 衛氣와 營氣가 올바른 脈道로 흘러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體表에 存在하여 人體를 감싸주고 있는 衛氣는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의 役割을 하는데 自汗은 그릇이 깨져 속의 물이 밖으로 새는 것으로 보아 깨진 부분을 메워주면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아 다시 補充되어 질 수 있고, 深部에 存在하여 人體를 채워주고 있는 營血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물과 같은 것으로 盜汗은 담긴 물이 적어 熱에 쉽게 끓어 넘치는 것으로서 그릇의 물을 補充하여 주고 熱을 줄여 주면 더 이상 쉽게 끓어 넘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治療에 있어서 自汗의 경우는 氣虛·陽虛를 爲主로 보아 陽氣를 補充하되 이미 損失된 陰血이 많은 경우는 이를 더불어 補充하는 方法⁴³⁾을 쓰고 盜汗은 陰虛와 火動을 爲主로 보아 補陰瀉火를 하되 이미 虛해진 衛氣를 더불어 補하는 方法⁴⁴⁾을 쓰도록 되어있다. 氣虛로 自汗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內傷虛損, 傷寒外感氣虛, 癰疽 등이 있고⁴⁵⁾, 陰虛有火로 盜汗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腎病, 腎火, 脾濕盛, 肝熱, 膽熱 등으로 나누어 진다.⁴⁶⁾ 이상으로 自汗과 盜汗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으나 臨床에서는 서로 混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쪽이 爲主로 疾病이 發生했는지는 다른 증상들을 같이 參考로 判斷하여 治療하여야 할 것이다.

4.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본 땀

형상의학에서는 인체를 크게 男女, 老少, 膽·膀胱體, 臟腑, 外形 등으로 구분하는데 각 형상마다 땀이 나는 生理·病理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1) 男女

여자는 몸이 더워야하고 남자는 몸이 차다. 몸이 차다는 것은 땀을 흘린다는 것이고, 몸이 덥다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자는 陽이므로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風寒暑濕燥火 특히 風을 배제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이며 반면에 여자는 陰이므로 집안살림을 하는 것이며 땀이 나지 않는다. 즉 남자는 腠理를 위주로, 여자는 臟을 위주로 되어있다.⁴⁷⁾ 남자는 陽기에 흠어지기 쉽고 여자는 陰에 屬하여 氣가 많이 鬱滯한다.⁴⁸⁾ 그러므로 陽이 爲主로 된 남자가 陰이 爲主로 된 여자보다는 대체로 땀이 많다. 특히 여자는 陰血을 用事하므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유행하는 질질방이나 사우나, 혹은 에어로빅, 헬스 등으로 땀을 과도히 내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피를 말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早期閉經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하여야 할 점이다.

2) 老小

女子는 49歲, 男子는 64歲⁴⁹⁾부터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

宜補陰·降火, 『正傳』”

43) 對譯 東醫寶鑑 p. 261 “...黃芪湯, 參歸腰子, 雙和湯, 小建中湯 ...”

44) 上揭書 p. 263 “盜汗, 乃陰虛·血虛有火也. 當歸六黃湯甚妙. 又四物湯加 知母·黃柏. 兼氣虛, 加參·朮·黃芪. 『丹心』”

45) 上揭書 p. 261

46) 上揭書 p. 263

4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 10

4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 12

49) 對譯 東醫寶鑑 p. 117

“素問曰, 黃帝曰, ……岐伯對曰, 女子七七, 任脈虛,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 八歲, 腎氣實

汗, 二曰精寒, 三曰精滑, 四曰精少, 五曰囊下濕痒, 六曰小便澀數, 七曰夜夢陰人, 其病皆小便赤熱, 或如鉞刺. 『入門』

27) 上揭書 p. 229 “內經曰, 少陰所至爲衄. 釋曰, 衄, 血汗也.”

28) 上揭書 p. 1346 “黃汗之病, 身腫發熱汗出而渴, 汗出染衣, 色正黃如黃柏汁. 以汗出時, 入水浴得之. 『仲景』”

29) 對譯 東醫寶鑑 p. 1345

30) 濕熱病的 形象醫學의 考察 및 治療, p. 4

31) 對譯 東醫寶鑑 p. 1347 “無汗爲表實, 宜發汗, 或吐之. 發汗宜麻黃醇酒湯吐之宜瓜蒂散. 『綱目』”

32) 對譯 東醫寶鑑 p. 266

33) 上揭書 p. 266

34) 上揭書 p. 266 “白朮散”

35) 上揭書 p. 266

36) 上揭書 p. 266

“凡汗漏不止, 則眞陽脫亡, 故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痲寒矣. 『入門』

37) 上揭書 p. 1058 “溫經益元湯, …陶氏再造散”

38) 上揭書 p. 267 “六陽氣俱絕, 則絶汗乃出. 朝朝夕死, 夕占朝死. 『靈樞』”

39) 上揭書 p. 267 “汗者, 血之異名. 故靈樞曰, 脫血者, 無汗, 脫汗者, 無血

40) 上揭書 p. 266

41) 上揭書 p. 260 “靈樞曰, 衛氣者, 所以肥腠理·司開闔者. 衛氣虛則腠理疎開闔無司而汗多矣.”

42) 上揭書 p. 263 “盜汗者, 寤寤通身如浴, 覺來方知, 屬陰虛營血之所主也

므로 이때부터 老人이라 할 수 있다. 年老하면 精과 血이 모두 줄어들게 되므로⁵⁰⁾ 몸의 津液이 모두 不足하게 된다. 그러므로 老人은 비록 外感이 있어도 맛이 쓰고 성질이 찬 藥과 땀을 많이 내거나 몹시 땀하게 하거나 甚하게 설사시키는 藥은 절대 쓰지 않도록 하여 성질이 순한 藥으로 調理하고 치료하여⁵¹⁾ 津液을 소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老人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 성생활을 많이 하는 것은 극히 안 좋은 것이다.

小兒는 純陽이므로 熱이 많은 반면에 腠理가 아직 치밀하지 못하였으므로 땀이 나기 쉽다. 어린아이가 腠理가 열리는 봄·여름에는 땀이 나는 것이 正常이고, 腠理가 닫히는 가을·겨울에 땀이 나는 것은 非正常이다. 그러므로 沐浴을 자주 시켜서 腠理를 수시로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⁵²⁾ 어린이는 살이 軟하기 때문에 萬若 두꺼운 옷을 입히거나 너무 덥게 하면 皮膚를 傷하게 하고 血脈을 나쁘게 해서 皮膚病이 생긴다. 어린 아이가 땀이 나면 腠理가 열려서 風邪가 들어가기 쉬우니까 좋은 날은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疾病이 나지 않는다.⁵³⁾ 治療法에는 봄·여름에 땀이 많이 흘리면 補氣劑를 쓰고 가을·겨울에는 止汗劑를 쓰는 것이 原則이다.⁵⁴⁾

3) 精氣神血

精氣神이 合—⁵⁵⁾되어 나타나는 現象 즉 夢·聲音·言語·津液·痰飲 中의 하나로서 精氣神이 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들이 疾病現象으로 나타나는데, 땀은 이중에서도 津液이 變하여 되는 것이다. 病理的으로 살펴보면 精科는 精漏泄 등으로 盜汗과 陽虛로 인한 頭汗이 많고, 氣科는 氣虛로 인한 自汗과 氣滯로 인한 手足汗이 많고, 神科는 思慮過多로 인해 心이 虛하거나 心氣鬱滯하기 쉬우므로 心汗·腋汗과 陰虛로 인한 盜汗이 많고, 血科는 血이 虛해지기 쉬워 血不足으로 인한 盜汗이 나타나기 쉽다.

4) 五臟六腑

津液은 五液⁵⁶⁾이라 하여 五臟에는 貯藏되어 있으나 六腑에는 貯藏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男女에서도 五臟을 體로 하는 男子⁵⁷⁾가 땀이 많고, 六腑를 體로 하는 女子⁵⁸⁾는 땀이 적은 것이다. 五臟에 있어서는 陽을 주관하는 心和 精을 주관하는 腎이 火와 水로서 津液의 升降과 汗의 生成에 相互作用을 하고 있다. 肺는 氣를 주관하여 腎精과 心陽을 받아 全身體表로 펼쳐주며, 脾는 水穀을 통해 津液을 만들어 각 臟器와 四肢로 보내주며, 肝은 보내온 津液을 血로 貯藏한다. 이렇듯 각 臟器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땀의 樣相이 각기 다르다. 心에서는 思慮過多등으로 인해 心陽亢盛하여 心汗·腋汗이 나타나고, 腎에서는 과도한 性生活등으로 인해 陰精이 虛해서 盜汗이 나타나고, 肺에서는 氣虛로 인해 自汗이 나타나고, 脾는 四肢를 주관하므로 手足汗이 나타나

고, 肝은 血을 주관하므로 血虛로 인한 盜汗이 나타난다.

5) 六經形

땀은 氣血의 多少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手足三陰三陽으로 구성되어 있는 12經脈은 각각 氣血의 多少가 다르다. 이를 분류하면 多氣多血한 陽明, 少氣多血한 太陽·厥陰, 多氣少血한 少陽·太陰·少陰으로 나뉜다.⁵⁹⁾ 陽明形은 多氣多血하여 濕熱이 많이 발생하므로 땀이 가장 많고, 반면에 少氣多血하고 몸이 차거운 厥陰型은 땀이 가장 적다. 少陰形은 多氣少血로서 男子의 基本形으로 氣虛로 인한 自汗이 많고, 少陽形은 多氣少血로서 女子의 基本形으로 땀이 많지 않으나 血虛로 인한 盜汗이 올 수 있고, 太陽形은 少氣多血하면서 氣勢가 위로 향하여 땀이 상부에 많이 쉽고, 太陰形은 多氣少血하고 氣勢가 아래로 향하여 땀이 下部에 많이 쉽다.

6) 膽體·膀胱體의 경우

膽體란 陽盛陰虛하고 氣盛形衰한 사람이고, 膀胱體란 陰盛陽虛하고 形盛氣衰한 사람을 말한다.⁶⁰⁾ 대체로 脈이 膽에 떨어졌다면 內傷이거나, 前面病이거나, 熱症이거나, 胃病이거나, 실제로 膽이 나쁜 것일 수 있다.⁶¹⁾ 그러므로 膽體에게는 內傷과 熱로 인한 땀이 많으며, 脈이 膀胱에 떨어졌다면 外感이거나, 後面病이거나, 陽虛證이거나, 寒症이거나, 氣虛病이거나, 濕痰症이거나, 脾病이거나, 실제로 膀胱이 나쁜 것일 수 있다.⁶²⁾ 그러므로 膀胱體는 外感和 氣虛濕痰으로 인한 땀이 많다. 즉 땀이란 크게 氣虛濕痰으로 나타나는 自汗과 陰虛火動으로 나타나는 盜汗으로 구분되는데, 形象醫學에서는 氣가 虛해지기 쉬운 膀胱體에게 自汗이 많고 陰이 虛해지기 쉬운 膽體에게는 盜汗이 많다.

5. 땀의 臨床例

1) 임상례 1 - 男子 39歲

[形色] : 콧구멍이 크고 입이 발달, 이마에 주름이 많음

[脈] 60 腎 - 三焦 心
> 膀胱 <
60 肺 - 膀胱 腎

[증상]

- ① 平素에 술을 많이 마시고
- ② 疲勞感이 잦고
- ③ 음식은 잘 먹는데 살이 지지 않으며
- ④ 睡眠 中에 땀이 많이 흐른다.

[治療] : 六味地黃湯 合 補中益氣湯 加 知母·黃柏

[考察 및 經過] : 콧구멍이 큰 것은 肺가 虛한 것이다. 따라서 숨을 많이 들어 마셔야 한다. 陰虛盜汗이므로 正氣湯을 合方한 것이다.⁶³⁾

2) 임상례 - 男子 34歲, 이 ○

[來院日] : 2001年 12月 3日

[形] : 코, 귀가 크고 靚骨이陷했다.

…….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臟衰, 形體皆極, 八八, 齒髮去, ……., 而無子耳.”

50) 上掲書 p. 140

51) 上掲書 p. 140

52) 上掲書 p. 1662

5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p. 173

5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 10

5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117

56) 對譯 東醫寶鑑 p. 257

5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14

5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14

59) 形象에 관한 文獻 考察, p. 33~35

6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12

6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31

6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31

6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62

[色] : 面黃하고 皮膚가 浮澤하다.

[脈] 71 肝 - 大腸 肝
 > 膽 <
 69 心 - 膽 肺

[증상] : 1개월 전부터 睡眠 中에 땀이 나면서 體重이 감소하였다.

[治療] : 四物湯 加 人蔘 · 白朮 · 黃芪 · 知母 · 黃柏⁶⁴⁾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筋骨이 爲主로 생긴 膽體로서 過度한 飲酒와 吸煙 夜間勞動으로 氣血이 모두 損傷되었다. 특히 陰虛火動으로 因한 盜汗이 나타났으므로 陰血을 補하는 四物湯에 瀉火하는 知母 · 黃柏을 加했으며 코가 커서 氣도 虛해지기 쉬우므로 人蔘 · 白朮 · 黃芪를 加했다.

3) 임상예 - 女子 15歲, 노 ○○

[來院日] : 2001年 12月 5日

[形] : 얼굴이 둥글고 입술이 도톰함, 精科

[色] : 얼굴과 입술이 蒼白하다.

[脈] 91 心 - 膽 肝
 > 膽 <
 91 肝 - 大腸 肺

[증상]

- ① 生理가 2달간 없다가 20日 前부터 시작했는데 量이 많고 그치지 않는다.
- ② 안 나던 땀이 나면서 體重이 줄고
- ③ 食慾이 없으며
- ④ 숨이 차고 어지럽다.

[治療] : 益胃升陽湯⁶⁵⁾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女高生으로서 공부에 대한 執着이 강한 편으로 過度한 시험공부등으로 氣血이 損傷되어 顏色이 蒼白⁶⁶⁾해졌다. 특히 血이 損傷되어 生理가 늦어졌으며, 氣가 損傷되어 손발이 차고 自汗이 있으며 숨이 찬 것이다. 이에 血脫 時氣를 먼저 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胃氣를 다스려 氣를 생기게 하는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4) 임상예 - 女子 40歲, 유 ○○

[來院日] : 2001年, 12月 4日

[形] : 精科(耳目口鼻와 얼굴이 작으면서 둥글다)

[色] : 顏色이 어둡고 눈 밑에 기미가 있다.

[脈] 63 肝 - 大腸 肝
 > 膽 <
 60 心 - 膽 肺

[증상]

- ①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 ② 손발이 저리고 특히 下肢가 無力하며
- ③ 生理量이 줄었으며
- ④ 寒熱과 盜汗이 있고
- ⑤ 걸으면 발바닥에서 땀이 나고
- ⑥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治療] : 十全大補湯⁶⁷⁾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精科로서 精血을 消耗시키기 쉬운 女子이면서도 過度한 外部 活動으로 精血을 많이 消盡 시켰으며 아울러 衛氣마저 손상되어 四肢로 氣血을 공급하지 못하여 手足이 저리고 汗出이 심해진 것이다. 이에 血과 衛氣를 모두 길러주는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5) 임상예 - 女子 44歲, 양 ○○

[來院日] : 2001年 11月 6日

[形] : 血科

[色] : 얼굴이 어둡고 기미가 끼어있다.

[脈] 69 脾 - 小腸 心
 > 膀胱 <
 68 心包 - 胃 腎

[증상]

- ① 옆구리와 허리가 아프고
- ② 手足이 저린데 특히 下肢가 더 저리고
- ③ 生理量이 많이 줄었고
- ④ 최근에 盜汗이 생겼다.

[治療] : 四物湯 加 黃芪 · 人蔘 · 陳皮 · 升麻⁶⁸⁾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夜間에 일을 하면서 氣血을 많이 손상시켰으며 擔體면서도 膀胱에 脈이 떨어졌다. 이는 氣血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意味하여 특히 血科이면서 血虛로 因한 盜汗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血을 위주로 더불어 氣를 살려내는 상기 처방을 하였다. 陽脈이 나오지 않고 火熱症이 없으므로 火動은 甚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知母나 黃柏類는 加하지 않았다.

6) 임상예 - 男子 47歲, 김 ○○

[來院日] : 2001年 10月 13日

[形] : 筋骨形

[色] :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다.

[脈] 79 脾 - 小腸 肝
 > 膽 <
 83 心包 - 胃 肺

[증상]

- ① 1年 前부터 사타구니에서 땀이 나며
- ② 囊濕이 생기고 惡臭가 난다.
- ③ 職業上 運轉을 많이 하여 무릎이 아프다.

[治療] : 活血驅風散⁶⁹⁾

[考察 및 經過] : 前陰部는 陰頭라 하여 陽頭인 머리와 마찬가지로 陽氣가 모여 있는 곳인데, 이 환자는 몸의 精血이 부족한 상태에서 過勞나 性生活을 지나치게 하여 속으로 더 虛하여 지고, 밖으로는 風冷한 邪氣가 侵犯하고 風濕毒氣가 들어온 것으로 腎臟風이 생긴 故로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11月 5日 來院 時에는 脈이 82, 85로 떨어지고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陰汗症이 消失되었다. 이에 本治를 하기 위해 溫補腎陽하는 局方安腎元⁷⁰⁾을 투여하였다. 얼굴이 붉은 것으로 보아 이후에는 滋陰降火하는 처방

64) 對譯 東醫寶鑑 p. 263

65) 對譯 東醫寶鑑 p. 1143

6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p. 49

"얼굴이 희다는 것은 風寒濕燥火를 潤한다는 뜻이다."

67) 對譯 東醫寶鑑 p. 1176

68) 對譯 東醫寶鑑 p. 360

69) 上揭書 p. 820

70) 對譯 東醫寶鑑 p. 711

를 투여하여야 할 것이다.

7) 임상예 - 女子 38歲, 전 ○○

[來院日] : 2001年 12月 5日

[形] : 얼굴이 길다.(臍體)

[色] : 顔色이 萎黃하다.

[脈] 68 脾 - 小腸 肝
> 臍 <
72 心包 - 胃 肺

[증상]

- ① 1個月前 感氣에 걸림
- ② 洋藥服用後 땀을 많이 흘림
- ③ 寒熱往來 口渴 頭痛(左側 太陽穴 部位)
- ④ 食慾減退 泄瀉
- ⑤ 顔面浮腫 皮膚瘙癢 全身痛(2주전)등이 나타났다.

[治療] : 人蔘養胃湯⁷¹⁾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감기 초기에 發汗을 過多하게 하여 많은 津液과 陽氣(衛氣)까지 손상하게 되었다. 또한 渴症을 면하기 위해 寒冷物을 마시고 胃마저 손상을 주었다. 이는 內外가 모두 傷한 경우로서 傷寒陰證에 해당하여 이를 다스리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8) 임상예 - 女子 59歲, 김 ○○

[來院日] : 2001年 12月 8日

[形] : 얼굴과 耳目口鼻가 모두 작다.(臍體)

[色] : 顔色이 萎黃

[脈] 92 心 - 臍 肝
> 臍 <
89 肝 - 大腸 肺

[過去歷] : 5월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頭痛이 있던 中 최근에 갑작스러운 血壓上昇과 5일간의 嘔吐로 양방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검사를 받았다.

[증상]

- 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8일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나서
- ② 입이 마르고 睡眠 中에 땀이 나기 시작하였으며
- ③ 체중이 감소하며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治療] : 四物湯 加 知母·黃柏·人蔘·白朮·黃芪⁷²⁾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耳目口鼻가 모두 작고 얼굴이나 몸이 筋骨形으로 평소에도 陰血이 不足하기 쉬운데 嘔吐와 水穀의 不足으로 체내의 津液이 더욱 부족하여진 것으로서, 우선 부족한 陰血을 보충하고 火를 삭히며 腠理를 튼튼히 하고자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胸悶과 惡心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환자는 氣鬱症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 中氣症을 치료 할 수 있는 木香順氣散등의 처방을 더 투약하여야 한다고 사려된다.

9) 임상예 - 女子 41歲, 노○○

[來院日] : 2001年 12月 11日

[形] : 男性的(머리가 크다)

[色] : 顔色이 浮澤하다.

[脈] 82 心包 - 胃 心
> 膀胱 <
82 脾 - 小腸 腎

[증상]

- ①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을 많이 쉬고
- ② 浮腫이 있으면서
- ③ 잘 滯하고 쓰리며
- ④ 때로는 매스거리면서 泄瀉를 할 때가 있다.
- ⑤ 아랫배가 가끔 아프고
- ⑥ 緊張하면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난다.

[經過 및 治療] : 香砂平胃散⁷³⁾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머리가 큰 男子 같은 女子로서 氣가鬱하기 쉬운 환자로 특히 心氣가鬱滯하여 胃腑에서 痰火가 발생하여 手足에서 땀이 나는 것으로서 우선 氣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치료방법이 된다. 이에 氣鬱로 인한 食積과 痰飲이 嗜雜症과 陽明胃實을 초래한 것으로 行氣消食化痰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10) 임상예 - 女子 47歲, 정○○

[來院日] : 2001年 12月 12日

[形] : 耳目口鼻가 모두 크다.

[色] : 顔色이 萎黃하며 어둡다.

[脈] 64 肝 - 大腸 肝
> 臍 <
63 心 - 臍 肺

[증상]

- ① 手足이 모두 저리고
- ② 筋肉이 뭉치고 痛症이 있으며
- ③ 눈이 침침해졌다.
- ④ 원래 땀이 없었는데 疝疝⁷⁴⁾에 다니고 나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 ⑤ 最近에도 계속 1주에 1회 다니고 있다.

[過去歷] : 6年前 子宮과 卵巢의 腫瘍으로 한쪽 卵巢만 남기고 摘出手術을 받음

[治療] : 雙和湯⁷⁵⁾ 加 鹿茸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脈이 肝 大腸으로 나왔으며 과도한 땀의 배출로 인해 陰血이 부족해진 것으로 血을 藏하고 筋肉과 汗을 주관하는 肝의 機能이 弱해진 狀態이다. 이에 虛勞로 보고

73) 對譯 東醫寶鑑 p.1131

74) 上揭書 p.1058 "發汗法"

대개 땀낼 때는 손발과 온몸에 축축하게 2시간 가량 내는 것이 더욱 좋고, 물을 끼얹은 것처럼 흘러내리게 내지 말아야 한다. 「仲景」 허리 위는 평상시와 같이 덮고, 허리 아래는 두터운 이불을 덮어야 한다. 허리의 위로는 비록 땀을 흘러내리게 냈지만 허리의 아래에서 발까지는 약간 축축하게 내면 병은 중시 낫지 않는다. 「活人」 땀낼 약을 먹을 때는 비록 하루 한 두번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병이 심하여 낫지 않으면 시간을 단축하여 한나절 동안 한 두번에 다 먹든가 또는 3첩을 연거푸 먹으면 낫는다. 만일 땀이 나지 않으면 죽을 병이다. 「仲景」 약을 먹어 땀을 내는 것이 병에 맞으면 더 먹지 말아야 한다. 땀을 지나치게 내면 亡陽證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딱하게 하거나 泄瀉시키는 것도 이와 같다. 「仲景」

75) 對譯 東醫寶鑑 p.1176

71) 上揭書 p.1017

72) 上揭書 p.263

肝을 補하며 膜理를 튼튼히 하고자 四物湯 加減方인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11) 임상예 - 女子 30歲, 김○○

[來院日] : 2001年 12月 3日

[形] : 눈과 입이 크고 下靨이 빠지고 靨骨이陷했다.

[色] : 面白

[脈] : 99 肺 - 膀胱 心
 > 膀胱 <
 99 腎 - 三焦 腎

[증상]

- ① 감기 걸린 지 오래되어 洋藥을 계속 服用하였으나
- ② 最近에 惡心, 嘔吐, 眩暈, 項強, 心悸등이 나타났고
- ③ 口渴과 自汗·盜汗이 나타났으며
- ④ 頭痛, 全身痛이 남아있다.

[治療] : 加味益氣湯⁷⁶⁾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傷寒에 오랜 동안 적절한 治療를 받지 못하여 氣血이 많이 손상되었으며, 그런데도 陽脈이 나온 것을 보면 寒邪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正邪가 抗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려된다. 예전부터 過勞하여 자주 疲勞가 왔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傷寒 中에서도 勞力感寒에 해당되어 氣血을 우선 補하고 寒邪를 제거하는 상기 처방을 투약하였다.

12) 임상예 - 女子 40歲, 최○○

[來院日] : 2001年 10月 30日

[形] : 陽明形 氣科 얼굴이 매우 크다

[色] : 顏色이 아주 붉고 기름기가 많이 끼었다.

[脈] : 106 肺 - 膀胱 心
 > 膀胱 <
 105 腎 - 三焦 腎

[증상]

- ① 땀이 많고
- ② 얼굴이 이상적으로 커지고
- ③ 皮膚가 울퉁불퉁해지고
- ④ 男子처럼 形態가 바뀌었으며
- ⑤ 가슴이 답답하고
- ⑥ 팔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다.

[過去歷] : 9年前 過度한 stress를 받은 후부터 얼굴이 붉어지고 非正常的으로 자꾸 커지고 있음

[治療] : 防風通聖散⁷⁷⁾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氣科의 환자로서 氣가鬱하기 쉬운 데다가 몸에 熱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鬱火가 甚해져서 얼굴로 올라가서 熱生風한 것으로 보아 風熱을 제거하는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12月 10日 來院했을 때의 脈은 101에 100이 나왔으며 얼굴 붉은 것과 기름기가 줄었다. 心火와 風熱을 좀더 제거하기 위해 黃連과 薄荷를 加하여 투여하였다.

13) 임상예 - 女子 64歲, 전○○

[來院日] : 2001年 12月 7日

[形] : 陽明形 走類

[色] : 顏色이 붉다

[脈] : 87 心包 - 胃 心
 > 膀胱 <
 86 脾 - 小腸 腎

[증상]

- ① 空腹시 속이 쓰리고
- ② gas가 많이 차고 잘 滯하고
- ③ 어지러우며 옆구리가 결리고 숨이 막히며
- ④ 눈물이 많이 나고
- ⑤ 손·발바닥이 불이 나듯이 뜨겁고 땀이 난다.

[治療] : 加減小柴胡湯⁷⁸⁾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走類로서 肝氣가 實해서오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오래된 鬱症으로 火가 甚해진 것이다. 五心 煩熱症을 治療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그리고 이 환자는 나이로 보아 老人에 해당하고, 五心煩熱症은 血이 虛한 틈을 타서 熱이 오는 것이므로 熱이 제거된 이후에는 血을 보충하여야 한다.

14) 임상예 - 女子 47歲, 김○○

[來院日] : 2001年 12月 21日

[形] : 氣科 (네모지게)

[色] : 안색이 누렇다

[脈] : 97 心 - 膽 肝
 > 膽 <
 91 肝 - 大腸 肺

[증상]

- ① 어지럽고(生理後 더욱 심해짐)
- ② 午後에 피로하고
- ③ 食事後 가슴이 답답하고 트림을 하고
- ④ 신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 ⑤ 大便이 무르면서 시원치 않고
- ⑥ 코가 막히고 가래가 있으며
- ⑦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治療] : 四君子湯 加 黃芪·半夏·陳皮·川芎·荊芥⁷⁹⁾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女子면서 氣科로서 氣가鬱하여 痰이 생기고 體重減量을 위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排出하여 衛氣가 虛해졌다. 입은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陰血은 많이 不足하지 않은 것으로 思慮되어 補氣하면서 痰飲을 除去하고 眩暈을 治療하기 위해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15) 임상예 - 男子 27歲, 장 ○○

[來院日] : 2001年 12月 19日

[形] : 얼굴이 길다 (血科)

[色] : 顏色이 어둡다

[脈] : 80 脾 - 小腸 心
 > 膀胱 <
 80 心包 - 胃 腎

[증상]

76) 上揭書 p. 1067

77) 對譯 東醫寶鑑 p. 967

78) 上揭書 p. 1112

79) 對譯 東醫寶鑑 p. 490

⑦ 가려움증이 심하다.

[治療] : 陶氏補中益氣湯⁸⁶⁾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感氣 중에도 運動을 過하게 하여 氣血이 모두 손상되어 寒邪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正邪가 계속적으로 抗爭을 하다보니 血虛有火하여 皮膚에 火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氣血을 補하면서 寒邪를 除去할 수 있는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11월 24일 來院時에는 81/72脈으로 胞에 나왔고 감기 증상과 얼굴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皮膚증상이 목의 측면 부위에 남았으며 神經이 예민하고 stress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火를 제거할 수 있는 逍遙散⁸⁷⁾을 투여하였다. 12월 21일 來院時에는 땀이나 다른 증상은 모두 好轉되었으나 눈 밑이 어두운 것이 관찰되어 惡心, 頭痛, 流產 經歷 등 痰飲의 증상이 확인되어 痰飲을 除去하며 子宮의 陰血을 조절하는 調經散⁸⁸⁾을 투여하였다.

20) 임상예 - 男子 20歲, 장○○

[來院日] : 2001年 12月 24日

[形] : (陽明) 입과 코가 크다

[色] : 顏色이 누렇다

[脈] : 80 脾 - 小腸 肝

> 膽 <

88 心包 - 胃 肺

[증상]

- ① 최근에 體重이 늘면서
- ② 땀이 더욱 많아졌으며
- ③ 腹部가 膨滿하고
- ④ 食事後에 바로 화장실을 가며
- ⑤ 大便이 무르면서도 시원치가 않다.

[治療] : 六君子湯⁸⁹⁾

[考察 및 經過] : 이 환자는 氣虛濕痰한 사람으로 과식과 음주등으로 濕痰이 더욱 많아졌고 胃氣가 더욱 虛해져서 水穀을 분리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氣虛浮腫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濕痰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氣를 補하기 위해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결 론

필자는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땀의 발생 원리와 증상 및 診斷, 治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형상의학적 관점에서의 男女, 老小, 精氣神血, 五臟六腑, 六經形, 膽·膀胱體의 땀의 개념과 治驗例에 대해 考察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상에 있어 땀은 인체의 생리적 현상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지만 病理的으로도 환자의 상태와 체질, 그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위별로 땀이 나는 양상이 다른 것은 그 부위를 주관하는 각 臟器의 生理·病理的인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땀은 精氣神이合一되어 나타나는 현상 즉 夢·聲音·言語·津液·痰飲中の 하나로서 精氣神이 잘合一이 되지 않았을 때 疾病現象으로 나타나는 데, 精氣神血 中에서도 각기 다른 樣相의 땀이 나타난다. 形象醫學에서는 인체를 크게 男女, 老少, 膽·膀胱體, 臟腑, 六經形등으로 구분하는데 각 形象마다 땀이 갖는 生理·病理的 意味를 다르게 解釋하고 있는데, 역시 땀이 나는 原因과 樣相도 各各 다르게 나타난다. 陽盛陰虛하고 氣盛形衰한 膽體는 盜汗이 많고, 陰盛陽虛하고 形盛氣衰한 膀胱體는 自汗이 많다.

참고문헌

1. D. Robertshaw, 환경적응생리, 도서출판 하우, 서울, 2000.
2. 신문균, 국지연, 박애경, 진종언, 해부생리학, 현문사, 서울, 1999.
3. 정해만, 구자영, 조현, 해부생리학, 정문각, 서울, 1998.
4. 姜斗熙, 生理學, 新光出版社, 서울, 1998.
5.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81
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8.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0.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81
11.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員出版社, 洪元植, 서울, 1985
12.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 譯解, 一中社, 서울, 1991
13. 許浚, 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史 서울 1999
14. 白根基, 形象에 관한 文獻 考察, 大韓傳統韓醫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서울, 1999
15. 趙璋洙, 濕熱病的 形象醫學的 考察 및 治療, 大韓形象醫學會 論文集 서울, 2001